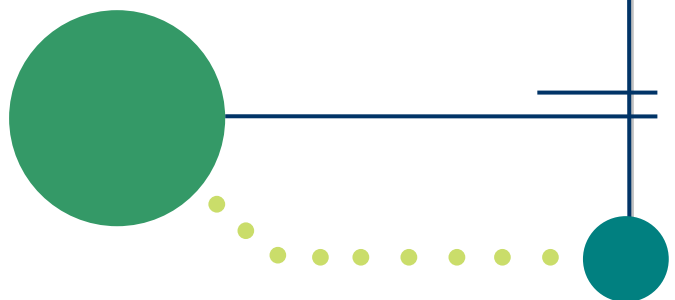




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

- 최초 축구소재 MMO게임, interzone futebol 브라질 출시
- 브라질 게임엔진 기반 교육 강화
- EA, 베네수엘라 독재 정부비판 게임 현지 출시



최초 축구소재 MMO 게임, interzone futebol 브라질 출시

🌐 Interzone Entertainment, 축구 소재 MMO 게임 공개

- ◆ Interzone Games와 BigWorld 라이선스의 모기업인 Interzone Entertainment가 브라질의 열광적인 축구 팬들을 겨냥하여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MMO 스포츠 게임 'Interzone Futebol'을 공개, 최초로 포르투갈어판이 선보일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해외 출시를 위한 인터내셔널 버전을 작업하고 있음

🌐 'Interzone Futebol' 게임의 내용

- ◆ 'Interzone Futebol'은 브라질 상파울로에 위치한 라이브 팀의 지원을 받아 호주 서부 Perth에 있는 50명 이상의 Interzone Games 스태프진이 개발했으며, Interzone Entertainment는 이를 위해 Microsoft, Interplay, Parallax, Lionhead, Cyberlore 등의 메이저 개발 업체 인력도 고용해온 것으로 알려짐
- ◆ 'Interzone Futebol'은 팀 기반 멀티플레이 매치 방식으로, 경기장 내의 모든 캐릭터를 서로 다른 플레이어가 컨트롤하게 되며 심지어 여태껏 AI에 의존해 왔던 골키퍼도 플레이어의 컨트롤이 가능해짐
 - 플레이어는 개인 랭킹과 팀 랭킹을 올리고 연봉 및 스폰서 계약으로 돈을 벌며, Interzone의 온라인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함
 - 'Interzone Futebol'은 사고 공간을 마련하여 함께 게임을 즐길 플레이어를 찾는 등, 다른 축구 게임과는 차별성을 두었으며, 게임 내에서도 손쉽게 친구와 매치를 즐길 수 있도록 새 친구를 게임으로 초대하는 시스템을 도입

🌐 출시 배경

- ◆ Interzone Entertainment의 Marty Brickey 사장은 라틴 아메리카에 첫 공략 시장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축구에 열광하는 브라질의 문화를 꼽음
 - "총 18개의 월드컵 챔피언 컵 중 9개가 남미 국가, 거기에 브라질은 5개의 컵을 손에 넣었다"면서, "축구의 영혼이 불타는 브라질 인구 중 18~34세의 수는 1,500만 명으로 매우 많으며, 이는 우리의 축구 게임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라고 밝힘
- ◆ 'Interzone Futebol'의 런칭은 2008년 4/4분기쯤 할 것으로 계획된 가운데, 정확한 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Interzone Entertainment

- ◆ Interzone Entertainment는 글로벌 MMO게임 퍼블리셔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가 있고, 호주, 브라질, 아시아 등지에 개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음



www.interzoneentertainment.com

브라질, 게임엔진 기반 교육 강화

● 교육 과정 개설

- ◆ AIS Computer Graphics는 이 과정을 위해 Epic Games, Midway, Autodesk, Adobe, Singergex of Brazil과 파트너십 맺음

● 교육 과정 내용

- ◆ Unreal Engine 기반 게임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은 게임 개발, 컨셉 미술, 군중 설계, 3D 모델링 그리고 학년별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수업들을 넘나들며 게임 제작 과정을 익힘
- ◆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서 실무에서 사용되는 각종 교재와 프로그램들을 접하게 됨
 - 3D 모델링을 위해서는 ZBrush와 Maya, 텍스처 제작에는 Adobe Photoshop, Mod 제작에는 Unreal Engine 등을 수업에서 다룸

EA, 베네수엘라 독재 정부 비판 게임 현지 출시



● EA, 'Mercenaries 2: World in Flames' 현지 출시

- ◆ 베네수엘라 침공을 묘사한 게임으로, 지난달 31일 출시됨
 - 권력에 굶주린 폭군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무기로 정부를 전복하고 나라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는 내용임
 - 게이머는 2010년을 배경으로 미국 억양을 사용하는 용병의 일원이 되어 베네수엘라의 석유시설을 급습해야 함

●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근의 반발이 예상됨

- ◆ 2006년 개발 발표 시에도 Chavez 대통령 측근 의원이 비난한 바 있음
 - '자국민을 교묘히 선동해 결국 실제 침공에 나서려는 미국 정부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 비난한 바 있음
- ◆ EA측은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며 관련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함
- ◆ 베네수엘라 정부는 게임 출시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음